

〈세미나〉

분단 극복과 민족문화*

현길언*

1. 머리말

1.1. 분단국가에서 그 국가의 통치권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바는 바로 분단상황을 극복하는 일이다. 또한 그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억압하면서 소망하는 삶에 멀어지게 하는 것도 분단상황이다. 문학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는 욕망을 드러내면서 아울러 인간답지 못한 삶을 깨우치는 일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할 때, 분단 상황이 이땅에서 이뤄지는 문학행위의 첫째 과제가 아니 될 수 없다. 그것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분단 극복이 한 민족의 생득적, 원초적 욕망이라는 점에서 보다 순수한 과제인 것이다.

그런데 왜 〈한국문학〉이 아니고 부디 〈민족문학〉인가. 우리는 단일민족이고 단일한 언어권에 있으므로 한국문학과 민족문학은 동일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데도 민족문학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민족적 콤플렉스와 관계가 있다. 우리 문학을 훼손시켰던 반민족적 사례가 문학속에 끼여 있었던 역사적 체험 때문이다.

* 이 논문은 85년 5월 23일 本大學 統一安保研究所가 주최한 통일문제 학술세미나의 주제발표 논문임.

* 師範大學 國語教育科 助教授

구체적으로는 일제 강점기 통치권을 빼앗겼던 상황에서 민족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일체의 문학 행위는 민족문학이란 개념 속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우리의 글에 의한 문학행위 중에서 민족의 역사 창조를 저해시키는 경우와 상대되는 입장에서 민족문학의 개념은 설정되어졌다.

그런데 해방 이후 주권국가를 이룩한 오늘날까지도 민족문학이 당위성을 갖는 이유는, 지금까지 때로는 민족의 주체적 생존과 그 대다수 구성원의 복지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왔으며, 이러한 민족적 위기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가 바로 우리의 문학의 건강한 발전을 결정적으로 좌우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민족 구성원 각자의 문학활동 중에서 그 민족의 주체적 생존과 인간적 발전을 요구하는 문학을 민족문학이라는 개념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데 <주체적 생존과 인간적 발전>에 대한 욕망은,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 산물이기 전에 사람다운 삶에 대한 생득적 욕망이기 때문에, 민족문학이 이데올로기로서 보편적 삶을 구축하는 역기능을 드러내지는 않게 된다.

이러한 민족문학에 대한 개념 정립은 분단 극복으로서의 문학이 이데올로기적 차원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단서가 된다.

1.2. 분단 극복의 노력이 당위성을 띄지마는 아울러 그것은 <반쪽>의 상황 속에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데서 결국 <반쪽>이라는 한계성을 갖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하이거나 전무일 수도 있다. 사실 분단 극복을 위한 노력은, <하나가 아니면 둘>이라는 성공과 실패(사실 실패의 확률이 더 많은)를 전제하면서도 계속하는 것이다.

또한 문학의 과제로서 분단 극복은, <피는 이데올로기 보다 진하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즉 이데올로기가 분단 상황으로 인하여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파괴하고, 자유스러움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그러한 문학적 노력이 통일을 향해서는 반쪽의 한계 안에 머물거나 그 이하<제로>의 상태로 헛수고로 그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충분히 문학이 추구해야 할 문제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분단의 문학적 탐구는 영원한 테마로 남게 되며, 여기에 민족문학이 이데올로기로서의 제한성은 스스로 풀려지게 된다.

그러면서도 통일에 대한 과도한 우리의 관심은 그것이 곧 이데올로기로서

분단극복과 민족문화

우리의 삶에 대한 압제적 요인이 되는 역설성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움도 있다.

남북통일이 안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운 우리 민주주의도 뜻없습니다.

어느 뜻도 뜻이라면 통일이에요.

한 시인의 이러한 통일 염원의 싹귀에서 남북통일이 없는 민주주의의 무의미함이 직설적으로 주장되어 지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통일이 소중함을 토로하는 의미이지만) 여기에서 분단극복이 갖고 있는 또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의 힘을 감지하게 한다. 앞에서 논의한 바 대로 분단상황의 극복은 도그마가 아니라 진실이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 정치적인 차원으로는 다르다) 즉 분단된 상황에서의 삶이, 통일된 상황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자유가 속박되어지고, 인간다운 삶이 훼손되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문학에서는 그것을 첫째 과제로 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성격과의 상이함은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끝없는 곤혹을 감수하게 만든다.

분단 극복의 민족문화도 문학성을 우선하여야 한다. 그 문학성은 분단 극복이 이데올로기로서가 아니라 생득적인 인간의 진실에서 근거한 것이다.

이 논의는, 해방 이후 분단 상황을 다룬 문학작품(소설)에서, 분단의 민족적 비극이 어떻게 투영되었으며, 그러한 상황의 극복을 위한 문학적 싸움이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가를 개관하여, 분단극복이란 문제를 민족문화의 과제로 건강하게 수용하는 길을 모색하려는 예비작업 중에 하나일 뿐이다.

논의의 과정에서 앞서 제시한 제한성과 곤혹스러움이 계속 드러날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길의 모색을 위한 논의 자체가 소설적 허구성을 띤 문학으로서 논의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분단 문학의 양상

분단 콤플렉스는 식민지 콤플렉스와 더불어 한국인의 의식에 부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심성구조의 하나이다. 그것은 패배의식, 열등감, 타율성, 운명론, 도

피심리의 병원체로 지목 되고 있다.

더구나 분단이 6·25라는 전쟁을 도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분단 이상의 상처를 스스로 지니게 되었고, 또한 그것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로서가 아니라, 현재 상황으로서 정치적 분위기와 사회 문화적 갈등, 그리고 의식의 도피주의와 비접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하는 억압적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분단이나 6·25는, 그것이 극복을 통한 통일의 지향이라는 대전제와 더불어, 현재의 삶의 자유스러움을 위하여, 그 억압의 정체를 파악하여 벗어 던지기 위하여서라도 계속 추구해야 할 문제로서 의미가 크다. 그러기에 항상 그 문제는 현재적 시점에서 재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분단상황은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그 비극성과 그 반민족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그러기 때문에 6·25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서 편입되어 버리게 아니라 작가의 현재적 시점에서 꾸준히 인식되어 왔다. 즉 현재적 상황 의식속으로 6·25를 끌어 들어옴으로 항상 현실의 여건에 따르나 새롭게 작품화 되어 왔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분단에 대한 인식이 변모되기도 하였지만 또한 불변의 문학적 측면도 있다. 이러한 변하는 측면과 변하지 아니하는 측면을 통하여,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변하는 측면의 의미를 파악할 때 분단 극복으로서의 민족문학의 의미가 드러날 것이다.

2.1. 전쟁과 파란된 삶

1950년대 6·25 발발 이후 이에 대한 문학적 대응 양식은 전쟁으로 인하여 파란된 삶에 대한 수난의식에 의해 결정지워진다.

전쟁으로 인한 생존에의 위기의식이 중견작가들에 의해 추구된다. 또한 전후에 등단한 신인들에 의해 존재론적 자아의 문제에 관심을 돌리게 되는데, 그것은 분단으로 인한 전쟁에 대한 적극적 대응양식이 못되고, 서구의 실존주의 사조의 영향 아래서 불구의식으로 대변되는 소극적인 대응양식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6·25에 대한 역사의식의 부재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전쟁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그러한 문제가 중견작가들에 의해서 보다는 신인들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더 치열하게 추구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의 경향은 전쟁으로 인한 사회윤리의 파탄 양상과 역사적인 수난

분단극복과 민족문화

의식을 드러낸 작품군이다. 전쟁으로 인한 상처입은 가족, 집단, 개인의 삶의 황폐함이 작품화되고 그것은 전후 사회의 실상을 대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분단이나 전쟁의 부산물로서의 현실의 내·외면적 실상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없으나, 분단 극복의 문제 추구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한계성을 지닌다. 그것은 전쟁을 우리의 전쟁, 우리 역사의 문제로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의 와중에서 그 직후의 폐허에서 현실이 그만큼 급박했고 처절했기에 그것에 대한 역사적 성찰이 가능할 수 없었던 것은 인정되나, 이러한 소극적 대응 양식은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학에서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2.2. 이데올로기에 대한 성찰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분단이나 6·25전쟁에 대한 문학적 성찰이 새롭게 전개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4·19란 역사적 계기가 준 선물이면서(최인훈), 시간적으로도 전쟁 후 10년이란 거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분단에 대한 이념적 인식은 최인훈의 「광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작자 자신이 술회했듯이, 이 작품은 〈빛나는 4월이 가져다 준 선물〉이라는 점에서, 그때까지 입에 올리기를 금기처럼 되어 있던 분단 문제를 이데올로기 차원으로 선택의 여지를 갖고 논의되었다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문학이 집단의 이념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 이념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데〉 구속적 요인이 된다는 것을 느낌으로써만이 아니라 실체로 드러내 놓았다는 점에서, 분단문제의 문학적 추구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학행위 자체에 대한 하나의 발전적 전기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광장은 그때까지 미만해 있던 분단 상황을 주어진 운명으로 인식하는 패배주의적 역사인식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이명준은 끝없는 자기 성찰을 통하여 「광장」을 향한 밀실로부터 탈출을 기도한다. 그 밀실은 이데올로기성과 관계 깊다. 그런 점에서 그가 추구한 이데올로기의 극복이 〈사랑〉에 귀착됨도 자연스런 결과이다. 사랑은 소망하는 삶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인공 이명준이 南도 아니고 北도 아닌 〈제 3국〉을 선택하였다는데(사실 그 선택도 포기되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제 3국을 선택하려는 의지와 그 의지는 이데올로기에 얽매었던 삶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되었다는

데 보다 큰 문학적 의미가 있다.

「광장」의 중요한 점은 바로 선택의 행동 양식에 있는 것이다. 흑자는 분단극복의 의지가 없는 민족적 허무주의에 투항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분단 극복이라는 민족적 소망이 성찰을 불허하여 경직됨으로 우상으로 굳어질 때 그건 실재로 민족적 소망에 부응하지 못함은 물론이요, 문학적 욕구에 역행됨도 명백해진다.

더구나 「광장」이 오늘날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문학적 인식이 1960년대 초의 한 현상에 지나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유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성찰의 부재는 분단 상황을 운명론적으로 수용하게 되며 그 극복 의지를 약화시켜 버린다. 그것이 작품화될 때, 정치성의 결여된 인정적 차원이나 감상적 차원에서 머물게 된다.

분단과 6·25에 대한 또 하나의 이념적 의식은 그것을 내면화시키면서 자기 각성을 도모함으로 드러난다.

김승옥의 「乾」이나 이청준의 「소문의 벽」 「병신과 머저리」 등에서, 지난날의 상처가 오늘의 삶에 새로운 각성을 불러일으키면서(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어) 오늘의 삶을 성찰하게 하고 있다. 그것은 거의 모든 작품에 드러나는 분단이나 6·25 전쟁의 현재성, 그리고 이데올로기성의 던져주는 여러가지 파행적인 정치, 사회현실이 또 하나의 아픔으로서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념적 성찰의 또다른 양식은 이문열의 「英雄時代」를 통하여 드러난다.

이 작품은 사실 언뜻보기에는 북쪽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과 또한 그것이 갖다주는 허무의식을 박진감 있게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분단극복의 문학적 성과에 값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좀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러한 이념비판이나 그 이념의 허구성에 대한 확인이 감상적으로 처리되어 버렸다는 취약성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취약성은 「英雄時代」만이 갖는 문제가 아니라는데, 분단극복 문학으로 민족문학의 현재성이 극복해야 할 문학자체의 문제인 것이다.

영남 세도가 천석지기 외아들 동영은 고보시절엔 아나키스트로, 유학시절엔 불세비키로 후에는 공산당에 입당 경성 콤포그룹 일원으로 활동하고, 남로당에

입당 6·25 이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정치적 몰락을 거치면서 자신의 이념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된다. 그 회의는 이념 선택의 진정한 동기에 대한 솔직한 깨달음이었고, 그에 따라 자신의 선택한 이념의 허구성에 대하여 스스로 비판을 가하게 된다. 즉 모든 이념이란 권력추구의 수단에 불과한 반인간적일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에 이른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주인공(동영) 자신이 이러한 이념의 성찰에 이르게 되는 동기에 있다. 그것은 전쟁의 상황 변화에 따라 자신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서 시작된다. 즉 자신에게 불이익을 갖다주는 현실에 대한 자기 중심적 회의에서부터 이념에 대한 비판 성찰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는 「광장」에서 보여준 선택의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다.

선택의 가능성이 배제된 상황에서는 이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결여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념비판이 아니라 이념혐오의 한계 내에 머물게 된다.

자신과 권력의 자리에서 소외되는 처지에서 비로서 이념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은 설득력이 결여되며, 비판은 감상적 인식에 머문다.

「英雄時代」는 정말 전근대적인 귀족주의 망상 속에 속빈 영웅으로 행세 하려던 「맑스보이」의 불행한 자서전일 뿐이지, 우리 시대의 분단극복의 문제를 제시하여 성찰하게 하는 작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 작품에서 이념에 대한 비판이나 공산주의자인 자신에 대한 성찰이 동영을 통해서가 아니라, 막강한 권력의 핵에 자리한 안나타샤의 자기 성찰과 동영과의 사랑을 통해 이뤄졌더라면 보다 설득력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전향의 논리는 감상적 인식을 불허한다. 그러기에 이 패배자의 전향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전면적 인식이나 비판의 결과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약화된다. 그것은 분단문제에 대한 나약한 인식과도 통한다.

또한 소설의 흐름이 동영과 그 가족의 황폐한 삶을 드러내는데만 집중되지 않고 보다 넓은 시야에서 전쟁과 이데올로기 폭력성을 현상화 시켰어야 했었을 것이다.

2.3. 핏줄의식과 이데올로기

〈동족상잔〉이란 말은 핏줄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양상을 압축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문제는 같은 지역, 같은 집안, 한 가정이 분단으로 인하여 그 관계가 어떻게 파탄되어가는가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여기에 전쟁은 우리와는 관계없는 외부적 현실로 인식된다. 우리 싸움이 아닌, 남의 싸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싸움이 우리들의 삶에 충격을 주었다고 인식하는데서 역사적인 민족의 삶의 황폐성과 같이하는 恨으로 드러난다.

그 중 하나는 의도되지 않은 이념의 선택, 본의 아닌 반목, 또 전통적인 사회제도의 모순에 따른(사실 당사자들의 책임은 아니다) 대립 갈등이 날카롭게 대립되면서 피가 피를 부르는 비극적 상황이,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확인되고 성찰되고, 극복을 도모하는 작품 세계이다.

문순태, 조정래, 전상국, 한승원, 현기영, 송기숙, 김성동 등 많은 작가의 작품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분단상황과 그에 따른 전쟁에 대한 증오, 이데올로기 횡포, 전쟁 와중에 벌어진 여러가지 비인간적인 사태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그러한 싸움에 대한 종합적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인식하면서 감상적, 인정적, 피상적 화해나 고발에서 더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면적 진실을 드러내는 단편 양식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편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가족사소설 양식이다.

원하지 않은 전쟁으로 분단으로 가족끼리 죽음을 부르거나, 또는 가족이 해체되는 비극에 직면한다. 그런데 그런 비극은 그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처로서가 아니라 아픔으로서 계속되는 것이다.

특히 80년대 쓰여진 많은 작품들이 이〈가족사소설〉양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분단 상황이 또 다른 측면에서 현재의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있는 사회체제나 현실과 밀착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원하지 않은 싸움에 당한 피해만도 그 아픔은 극심한데, 현실적으로 또 다른 아픔을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 지나도 극복되지 않고 더 경직되는 분단상황의 비극을 드러내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핏줄의식의 확산이다. 그것이 민족문학의 차원으로 승화되려면(물론 家系의 의미는 확대 해석이 가능하지만) 민족의식이 바탕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비극적 사태에 대한 인정적 인식이 극복되면서 전쟁의 역사적 필연성을 찾고 가족의 비극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분단극복과 민족문화

윤홍길의 「장마」는 핏줄의식이 정치적 이념적 대결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

빨치산에 입산하여 죽은 아들을 갖고 있는 〈나〉의 할머니와, 아들을 국군으로 보낸 외할머니가 죽은 삼촌의 現身인 구렁이를 통하여 두 안사돈의 화해하게 되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의식세계에 자리 잡혀진 원초적 심상을 핏줄과 호응시키고 있다.

2.4. 비극의 수용자 각성

6·25를 총체적으로 다룬 작품으로 홍성원의 「南과 北」이 있다.

여기에서는 6·25가, 선택의 불가능한 이념대결을 이데올로기와 전쟁을 증오하고 비난하고 외면하는 데서가 아니라, 〈우리의 전쟁〉이란 적극적 인식에서 극복이 가능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것은 우리가 분단 현실을 기피하거나 부끄러움으로 대응하는 데서는 결코 그 극복이 요원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비극의 수용은 현재적인 각성을 통하여 가능해지며, 또한 화해가 시도되기도 한다.

김원일의 「노을」 원홍길의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에서 분단의 비극은 운명적인 것으로 인식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려는데서 화해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김원일의 「어둠의 혼」에서도 비극의 사건을 거리를 두고 바라봄으로써 빨치산으로 입산한 아버지를 이해하고 이 세상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는 각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비극적 사태에 대한 객관적 인식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자칫 그것은 우리 역사적 현실에 대한 체념적 이해에 머물면서 문제 자체를 호도해 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각성과 화해의 양식은 분단 문제를 추구한 소설들의 형식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난다.

대부분 1인칭 시점에 의존하고 있다. 그 플롯구조도, 현재→과거→현재의 시간성 위에, ① 어떠한 계기에 ② 과거를 새롭게 알고 ③ 그 진실에 접근하는 양식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그 작가들이 직접 6·25를 체험한 세대가 아니라 간접체험의 세대인 때문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지난 시대에 대한 성찰의 양식이란 점

과 관계가 깊다.

그러면서, 그 성찰은 분단현실이 정치적으로 왜곡되게 이용되었던 한 시대의 상황이, <열린 사회에 대한 억압>의 빌미가 되었다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데올로기나 분단문제, 또는 그것이 파행적으로 행사되는 현실에 대한 직접적 추구를 기피하는 소극적 창작태도라는 점에서 작가적 성찰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은 분단극복이란 민족문학의 방법론으로는 미급한 감이 있으나, 그러한 양식의 수용이 한 시대의 작가적 진실을 드러내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문제는 그러한 소극적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은 상황이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작가의 치열한 문학정신에 있다.

3. 분단 극복으로서의 민족문학의 과제

분단 극복의 문학은 민족문학의 수립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다. 그것은 분단극복 문학이 바로 한국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욕구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족문학 역시 이념으로서보다는 모든 민족 구성원이 소망하는 삶에 기여한다는 입장에서 열려져야 한다. 그럴 때, 민족문학은 도그마로서가 아니라 진실로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분단의 극복은 통일인데, 통일은 한쪽의 의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분단문학에 대한 논의나 그것이 민족문학에 기여하는 데도 그만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애씀은 한계성 나름으로 분단의 현실이 일상적 삶에 영향을 주는 억압적 요소를 가능한 극소화할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민족문학으로서 분단극복의 문제를 논의하는 의도가 있다.

그러기 위하여 선택과 창조적 길이 무한으로 뻗쳐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만 역사에 대한 각성의 구김살을 없앨 수 있고, 외면이 아니라 참여를 통하여 분단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각성을 통하여, 설사 그것이 우리에게 의해 발발한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들에 의해 극복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인정될 때, 분단이나

분단극복과 민족문화

6·25에 대한 적극적 탐구가 역사의식을 통하여 문학으로 가능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민족의 동질성이 근본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기 위하여 지금까지 소설에서 이뤄졌던 〈화해의 양식〉을 비롯한 극복의 양식은 성찰되어야 하고, 여기에 진정한 리얼리즘 정신이 필요하게 된다.